



의리를 넘어 보혈로 맺어진 언약



날짜: 3/12/2023

본문: 사무엘상 18:1-5, 삼하 9:9-13

설교자: 김연재 목사

말씀 FOCUS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단순히 의리나 인간적인 우정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굳게 언약을 맺은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혈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성도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약속은 언제든 깨질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맺어진 언약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의 은혜로 인한 결코 변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말씀 UNDERSTAND

➤ 생명을 주는 절대적 언약

굳게 언약을 맺고(3절): to cut

-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레 17:11): **예수님의 피로 주어진 생명의 약속**
(마 26:28, 약 2:23)

언약 안에 있게 되면,

- 용서함을 받습니다. (삼하 9:1, 엡 4:32)
-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삼하 9:7)
-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삼하 9:7, 시 37:11)
- 존귀한 자녀, 소중한 가족이 됩니다.

말씀 APPLY 및 SHARE

1. 언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2. 보혈의 언약 안에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나요?
3.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묵상해 보세요. 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서기 위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함께 나눠 보세요.